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다

광주전남 현안진단

(4)광주 쓰레기 대책

나주 SRF 가동중단 후폭풍 양과동 매립장 처리비용 폭증 시 “나주 반입 무산시 손배소”

광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 남구 양과동에 설립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이 1년 6개월째 가동을 중단하면서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급증하면서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단축됐고, 급기야 지난달부터는 광역매립장에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중단했다.

이에 광주시는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증설공사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40억원을 신청하는 등 쓰레기 대란 해법 찾기에 나섰다. 녹취록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하루평균 쓰레기양은 1,269.1t이다. 이중 230여t은 매립, 270여t은 소각, 769.1t이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단순 매립되던 쓰레기에서 에너지 회수해 자원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매립장 수명 연장 등을 위해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시설(SRF) 건립을 추진했다.

광주 SRF 시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은 2016년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947억원을 들여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준공했다. 청정빛고을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에서 만든 SRF를 1t당 1만8,000원에 전량(하루 300t)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2017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가동을 멈춘 2018년 1월까지 모두 8만 5,000여t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했다.

하지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017년 말 시험가동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가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광주 SRF 생산시설의 가동도 중단됐다.

광주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2017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 양과동 SRF 시설에서 고효율로 전환됐다. 하지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광주지역의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나. 이에 시는 가연성 쓰레기를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양과동 매립장의 매립량이 늘어나면서 사용 연한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은 SRF 시설을 가동하던 2017년 하루 평균 324t에서 가동이 중단된 2018년에는 하루 평균 648t으로 2배 늘었다.

광주시는 새로 조성될 양과동 2-2단계의 사용 연한을 오는 2040년 8월로 예상했지만, 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으로 이보다 1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SRF 나주 반입이 계속 중단된다면 최종 매립지인 3단계의 경우 계획된 사용 연한 2068년 5월보다 30여년 앞당겨진 2038년 8월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SRF 시설 가동 중단으로 가연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폐기물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가연성 재활용 폐기물을 광주 SRF 시설과 매립장 모두에 반입하지 못하면서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무려 5배(3만8,000원~20만원) 이상 치솟은 것이다. 처리비용 폭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수거업체들이 울 하반기가 되면 ‘수거거부 선언’을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4개 기관·기업(광주시, 나주시, 한국난방공사, 청정빛고을)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중단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순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지역 내 소각장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완전히 가동을 멈췄고, 광주 SRF 공장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방법은 온전히 매립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등 주민홍보 활동 전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등을 지속해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을 위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SRF 나주 반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애란 기자

죽음의 조 뚫고 준우승...세계가 놀랐다



15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이강인(왼쪽) 등 대표팀 선수들이 관중석의 한국 응원단을 향해 박수를 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골든볼 수상 쾌거...한국축구 새역사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16일 오전(한국시간)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역전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 전반 5분 이강인의 페널티킥으로 앞서가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전반 34분과 후반 8분 동점골과 역전골, 그리고 후반 44분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다. ▶관련기사 14면

하지만 U-20대표팀은 결승 진출과 함께 역대 최고성적이라는 한국축구사를 만들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우리나라의 FIFA 주관 남자대회 최고 성적은 3위였다. 클럽대회인 FIFA 클럽월드컵에서 2009년 포항이 3위를 차지했고, 2012 런던을 랩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었다.

이번 대회 7경기 동안 2골 4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대표팀 막내 이강인(18·발렌시아)은 한국 남

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골든볼을 수상했다. 이강인은 경기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해 “골든볼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한 팀이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형들에게 공을 돌렸고 “좋은 대회였고,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정용 감독은 “선제골을 넣고 난 후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압박하면서, 하고자 한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키고자 한 것은 좀 아쉬웠다. 결정력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최진화 기자

201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대상 주민등록상 광산구민으로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방법 광산구 내 참여의원(1차의원) 진료 시 동의서 작성



등록시 다양한 혜택

- 고혈압·당뇨병 진료비/약제비 지원**
 - 만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진료비 - 최대 1,500원/월
 - 약제비 - 각 질병당 최대 2,000원/월
 - *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가능 * 월 1회 횟수제한
-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 만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성콩팥병 검사 * 전년도 검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
 - 안과검진 * 연 1회 횟수제한
 - 본인부담금 내 최대 1만원 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진료일 알림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교육프로그램 무료참여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시설 이용
 - * 이용 시 사전연락 바랍니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속도

사업추진단 확대...8월말까지 기본계획 승인

전남도가 고흥에 들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과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고흥군 도덕면 가야·신양리 일대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사업 부지 규모는 29.5ha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갖춘다. 사업비는 국비 546억원, 도·시군비 436억원, 자부담 74억원 등 총 1,056억원이다.

도는 혁신밸리 조성 대상 부지매입을 위해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선도 농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차원에서 수립한 예비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추진단도 전국 규모로 확대해 구성했다. 사업추진단에는 고흥군·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

용화재단 등이 참여한다.

지난 12일에는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사업추진단 전체 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서 수립을 위한 전체적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수립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와는 혁신밸리 운영 법안 설립을 위해 절차를 협의 중이며, 실증 단지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등과 스마트팜 기술교류회·세미나·전문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단과 청년창업보육·기술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기능이 집약된 기본계획을 세워 오는 8월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추진단과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청년창업보육·기술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기능을 집약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